

建安風骨과 盛唐氣象에 끼친 帝王 詩歌創作의 영향관계론

崔宇錫*

目 录

1. 머리말
2. 建安風骨과 曹操의 시가 창작
3. 盛唐氣象과 初盛唐 皇帝의 시가 창작
 - 3.1 唐太宗 시가 속의 氣象
 - 3.2 武則天 시가 속의 氣象
 - 3.3 唐玄宗의 시가창작과 盛唐氣象
4. 맺음말

1. 머리말

일반적으로 중국의 古代 詩史上 建安(196-219)시기와 盛唐(721-770) 시기는 그 시가의 예술적 성취도나 文學史上的 기여도 등을 모두 감안 할 때 絶頂의 두 봉우리로 여겨진다. 역대로 ‘建安風骨’과 ‘盛唐氣象’은 이 두 시기의 시가 특징을 개괄하는 가장 좋은 표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른바 ‘건안풍골’이라함은, ‘建安風力’ 혹은 ‘漢魏風骨’의 용어로 대체되기도 하는데, 대체로 시가 속에 ‘勁健’의 풍격을 포함하는 것을 가장 큰 특색으로 삼는다. 曹操(155-220), 曹丕(187-226), 曹植(192-232) 등 소위 曹氏父子를 중심으로 孔融(153-208), 王粲(177-217), 陳琳(?-217) 등의 建安七子 시가 창작이 그 주

* 又松大學校 GlobalDualDegree學部 中國專攻 助教授

를 이룬다. 한편 ‘성당기상’은 대체로 강력한 帝國의 氣魄을 한껏 내뿜던 盛唐의 ‘雄渾’한 기상을 시가 속에서 다양한 제재로 표현한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삼는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건안풍골’의 ‘勁健’과 ‘성당기상’의 ‘雄渾’의 특색은 모두 이른바 ‘陽剛’의 審美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며, 이는 또한 공교롭게도 建安 詩壇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던 魏武帝 曹操의 시가창작과 初盛唐 시단 형성에 역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唐太宗(599-642), 武則天(624-705), 唐玄宗(685-762) 등의 황제의 시가창작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陽剛’의 심미 풍격과 그 궤를 서로 같이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고대 중국의 제왕은 그 시가창작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제왕이기에 앞서 한 개인의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喜怒哀樂을 때로는 유약한 여성의 필치로 술회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변잡기적인 일상의 감정을 詠物詩나 贈答詩의 형식으로 서술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왕의 입장에서 웅대한 기상을 한껏 뽐내는 시가를 상당 부분 창작하였다. 예를 들어, 漢初 劉邦(BC256-BC195)이 明代 王世貞(1526-1590)에게 “「大風歌」 세 구절은 氣勢가 우주를 뒤덮고 천고에 제왕의 깃발을 펼쳤으니 한고조가 아닌가?”¹⁾이라는 평을 받았던 「大風歌」를 지은 이래로, 漢武帝(BC156-BC87)는 「秋風辭」를 지어 제왕의 기상을 펼쳤고 魏武帝 曹操는 「觀蒼海」, 「龜雖壽」등을, 唐太宗 李世民은 「過舊宅二首」 등을 창작하며 이른바 ‘陽剛’의 審美를 곳곳에서 체현하였다.

본고는 바로 이러한 점을 주목하여, 특히 역대 고대중국의 제왕 가운데 각별히 드높은 ‘氣象’ 혹은 ‘氣勢’를 시가 속에서 표현했던 建安의 조조와 初盛唐의 당태종 등을 비롯한 몇몇 황제의 시가창작에 초점을 맞추어, 바로 이들의 시가창작의 특성과 강건하며 높은 ‘氣象’ 혹은 ‘힘(力)’ 등으로 후세의 호평을 받는 이른바 ‘건안풍골’, ‘성당기상’과의 상호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논의는 ‘성당기상’은 ‘건안풍골’의 계승이라는 일반적인

1) 『藝苑卮言』卷2：“「大風」三言，氣籠宇宙，張千古帝王赤幟，高帝哉？”(丁福保輯，『歷代詩話續編』，北京：中華書局，1983年，976쪽)

학계의 관점과 또한 그 '계승'의 중간자 역할을 언급할 때에는 단지 初唐의 陳子昂(661-702)만을 주목하는 학계의 풍토에 더욱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며 아울러 제왕의 신분으로 창작한 시가창작의 풍격이 당대 혹은 후세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한 좋은 일례를 보여줄 것으로 믿는다.

2. 建安風骨과 曹操의 시가창작

이른바 '風骨'이라는 용어는 南朝 劉勰(466?-520?)의 『文心雕龍·風骨』편에서 제시한 이래로 문학비평의 중요한 이론이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원래는 魏晉 시기의 인물품평의 용어라 사용되었으나, 유희에 이르러 '建安'시기의 문학 풍격을 함께 논하며 하나의 시가 풍격용어로 자리 잡았다. 특히 유희는 『文心雕龍·明詩』편에서 "격양하여 氣에 내맡겨 창작했고, 흥금에 거리낌 없이 그 재능을 발휘 하였네"²⁾라는 표현으로 '건안풍골'의 함의를 드러내었다.

이후 梁代의 鍾嶸(468?-518)은 『詩品』에서 '建安風力'이란 용어로, 唐初의 陳子昂은 '한위풍골'이란 용어로 '건안풍골'을 지칭했으며, 宋代 嚴羽(1197?-1253?)에 이르러 '건안풍골'의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건안풍골'은 三曹와 建安七子를 중심으로 漢末의 격동하는 정치와 빈번한 전쟁 속에서 목도되는 처참한 현실을 '悲憤慷慨'한 목소리로 드높게 노래하거나 혹은 '建功立業'의 뜻을 드러내는 공통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주의할 것은 그러한 '건안풍골'의 풍격 속에는 '힘(力)'으로 표현되든³⁾ 혹은 '勁健'으로 표현되든,⁴⁾ 일종의 드높은 氣象을 한껏 드러낸 '陽剛'의

2) 『文心雕龍·明詩』卷2: "慷慨以任氣, 磊落以使才"(范文瀾注, 『文心雕龍注』: 臺北: 學海出版社, 1992年, 66쪽)

3) 孫敏強, 「從'建安風骨'到'盛唐氣象'-論風骨說的美學內涵和歷史意義」: "當時(建安)의許多文學作品都呈現了'力之美'的風貌, 可以說是'力'的文學"(『浙江學刊』, 1999年 第2期, 105쪽)

4) 陳長義, 「建安風骨與盛唐氣象的美學定格」: "建安風骨在陽剛這一美的家族里, 基本上屬於'勁健'一品"(『社會科學研究』, 1994年, 6月, 89쪽)

審美觀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嚴羽가 『滄浪詩話』에서 “건안의 작품은 모두 氣象을 중시하였다”⁵⁾라고 언급한 것은 바로 그러한 면모를 잘 대변해준다. 다만 여기서 주의 할 것은 이러한 ‘건안풍골’의 풍격형성에 曹操의 시가창작이 매우 중요한 건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古樂府의 형식을 빌려 당시의 일을 서술한 것은 조조에서 시작되었으며”,⁶⁾ 실제로 조조의 현존하는 시가는 모두 樂府詩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는 이른바 “슬픔과 기쁨을 느끼거나, 어떤 일에 연해서 감정을 표현하는(感於哀樂, 緣事而發)” 漢代 민간악부의 정신을 계승하여 건안문학을 선도 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조조의 시작은 후세의 평자들로 하여금 “漢末의 實錄으로 진정으로 詩史이다”⁷⁾라는 평을 받았다. 중요한 것은 조조의 詩作 속에서는 그 특유의 英雄적 氣象을 도처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일례로 그의 「步出夏門行·觀滄海」를 살펴보자.

東臨碣石, 以觀滄海	동쪽으로 갈석산에 올라 푸른 바다를 바라보네
水何澹澹, 山島竦峙	물결은 출렁거리고 섬들은 우뚝우뚝 솟아 있네
樹木叢生, 百草豐茂	나무들은 울창하고 온갖 풀 무성하며
秋風蕭瑟, 洪波湧起	가을바람 쓸쓸하고 거친 파도 일어난다
日月之行, 若出其中	떠가는 해와 달 바다 속에서 나오는 듯
星漢燦爛, 若出其裏	반짝이는 은하수 바다 안에서 나오는 듯
幸甚至哉, 歌以詠志	지금껏 다행스럽구나, 내 뜻을 노래할 수 있을지니

이것은 시인이 건안12년(207)에 烏桓을 북정하고 돌아오는 길에 碣石山에 올라 내려다보이는 가을바다의 풍경을 묘사한 山水詩이다. 1, 2구에서 ‘臨’, ‘觀’의 두 글자를 사용하여 높은 장소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雄偉한 배경을 설정했다. 뒤이어 3구에서 8구까지는 눈앞에 펼쳐진 가을 바다의 實景을 생동

- 5) 郭紹虞校釋, 『滄浪詩話校釋·詩評』: “建安之作, 全在氣象”(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7年, 158쪽)
 6) 沈德潛, 『古詩源』卷5: “借古樂府寫時事始於曹公”(『古詩源』, 北京: 中華書局, 1990年, 106쪽)
 7) 鍾惺, 『古詩歸』卷7: “漢末實錄”, 眞詩史也”(『三曹資料彙編』, 北京: 中華書局, 18쪽)

감 넘치게 표현하였다. 특히 9구에서 12구까지는 가슴 속에 품은 상상의 虛景을 묘사했는데, 그 장면이 실로 우주도 삼킬 만한 커다란 氣象을 드러내고 있다. 이 시에 대해 清代 沈德潛(1673-1769)이 “우주를 삼켰다가 토하는 氣象이 있다”⁸⁾라고 언급한 것이나, 鍾惺이 “가슴속과 눈앞의 것을 곧바로 쉰 것으로, 삼켰다 토하는 氣象이 온통 뒤 덮고 있다”⁹⁾라고 평한 대목은 모두 그러한 면모를 대변하는 것이다. 이어서 그의 또 다른 시 「步出夏門行·龜雖壽」를 살펴보자.

神龜雖壽	신령한 거북이 오래 살아도
猶有竟時	여전히 죽는 날이 있고
騰蛇乘霧	전설속 등사가 안개를 몰고 다녀도
終爲土灰	끝내는 흙과 재가 되네
老驥伏櫪	늙은 준마 마판에 엎드려 있어도
志在千里	뜻은 천리 밖에 있고
烈士暮年	열사는 늙그막에도
壯心不已	장대한 마음을 그치지 않네
盈縮之期	길고 짧은 나라의 운명이란
不但在天	하늘에 달린 것만은 아니네
養怡之福	수양하고 즐겁게 지낸다면
可得永年	그 복으로 수명을 연장하리라
幸甚至哉	지극히 다행스럽구나
歌以詠志	내 뜻을 노래할 수 있을지니

이것 역시 시인이 烏桓을 정벌하고 돌아오는 길에 지은 것이다. 전편에 걸쳐 激揚된 분위기로 시인의 ‘老益壯’을 호매한 기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처음 4구에서는 ‘신령스런 거북이(神龜)’와 ‘전설 속의 등사(騰蛇)’의 비유를 통해 인간도 언젠가는 죽게 되어있다는 명제를 설정했다. 이어서 나이가 들어서도 建功立業의 장대한 마음은 더욱 굳세어진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동시에 수양을 통한 복을 기원하고 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5구에서 8구까지에서

8) 沈德潛, 『古詩源』卷5: “有吞吐宇宙氣象”(104쪽)

9) 鍾惺, 『古詩歸』卷7: “直寫其胸中眼中, 一段籠蓋吞吐氣象”(『三曹資料彙編』, 17쪽)

‘늙은 준마(老驥)’가 늙어서도 ‘열사(烈士)’임을 잊지 않고 ‘장대한 마음(壯心)’을 발휘하여 시인 특유의 英雄적 氣象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 시에 대해 清代의 王堯衢가 『古唐詩合解』에서 “오로지 英雄의 氣概로서 늙어서도 더욱 장대해져 사물과 함께 스러져가길 원치 않는다”¹⁰⁾라고 언급한 바와 같다.

이밖에도, 조조의 「卻東西門行」에서 “신령스런 용은 깊은 물속으로 숨어두고, 사나운 맹수들은 높은 언덕을 활보하는구나(神龍藏深泉, 猛虎步高崗)”라고 읊은 것이나, 「短歌行」其二에서 “제환공의 공업은 패왕의 으뜸이네. 제후들을 규합시키고, 천하를 하나로 바로 세웠네(齊桓之功, 爲霸之首. 九合諸侯, 一匡天下)”라고 노래한 것 등에서는 모두 강건한 氣象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후세의 많은 評者들은 그의 시가 속에 엿보이는 영웅의 장대한 기상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沈德潛이 『古詩源』에서 “깊이 雄渾하며 준걸하고 상쾌하니, 때때로 霸氣를 드러냈다”¹¹⁾라고 언급한 것이나, 清代의 劉熙載(1813-1881)가 『藝概』에서 “조조의 시는 氣가 雄偉하며 힘(力)이 튼튼하여 죽히 모든 것을 덮을 수 있기에, 건안의 여러 시인들 가운데 그와 필적할 만한이가 없다”¹²⁾라고 한 것 등은 모두 그러한 면모를 대변해 주는 것이다. 물론 建安詩壇의 실질적인 領袖였던 조조의 바로 위와 같은 시가 풍격이 ‘건안풍골’의 풍격 속에 ‘힘(力)’ 혹은 ‘勁健’의 審美가 자리 잡게 하는 선도 역할을 해 주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漢末의 요동치는 난세의 전쟁터를 누비며 새로운 魏朝를 개국하는 한편 문학적으로는 기존의 전통에서 탈피하여 심지어는 ‘반전통(反傳統)’¹³⁾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쓰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대로 써내려가는(想寫的便寫出來)”¹⁴⁾ 시 창

10) 王堯衢, 『古唐詩合解』卷3: “惟英雄氣概, 老當益壯, 不肯與物同盡”(『三曹資料彙編』, 29쪽)

11) 沈德潛, 『古詩源』卷5: “沈雄俊爽, 時露霸氣”(103쪽)

12) 劉熙載, 『藝概』「詩概」: “曹公詩氣雄力堅, 足以籠罩一切, 建安諸子未有其匹也”(『三曹資料彙編』, 44쪽)

13) 王瑤, 『中古文學史論』: “他們開始在樂府的形式里求嘗試; 以前的各種曲調, 四, 五, 六, 七的各種句法, 都嘗試著用過了, 才奠定了後來五言詩的基礎. 在當時, 這種嘗試是大膽的, 也是反傳統的.”(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8年, 230쪽) 참조.

14) 魯迅, 「魏晉風度及文章與藥及酒之關係」: “他膽子很大, 文章從通脫得力不少, 做文章時又沒

작을 통해 그의 진면목을 그대로 드러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창작 배경에는 그의 가슴속에 품은 帝王의 氣象이 여실히 작용했음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3. 盛唐氣象과 初盛唐 皇帝의 시가창작

일반적으로 ‘盛唐氣象’은 ‘建安風骨’의 연장선상에서 논의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실상 南宋 嚴羽(1197?-1253?)는 일찍이 『滄浪詩話』에서 “건안의 작품은 모두 氣象을 중시하였다”라 평한 동시에 “당대인들과 송대인들의 시는 그 우열을 논하기 전에 그 氣象부터가 다르다”¹⁵⁾라고 언급하며 건안시단과 唐詩의 공통 속성이 그 氣象에 있음을 간파한 동시에 “성당의 여러 시인들의 시는 顏魯公의 서체 같이 筆力이 雄壯하며 아울러 氣象이 含蓄되어 두텁다”¹⁶⁾라고 언급하며 ‘성당기상’의 내포된 의미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현대에 이르러 ‘성당기상’의 용어를 정착시키며 논쟁의 불을 지핀 것은 林庚의 「盛唐氣象」이라는 논문으로, 그는 여기서 “성당기상은 氣象의 가장 높은 이상이다. … 성당기상이 ‘함축되어 두텁다(渾厚)’가 되거나 ‘웅혼(雄渾)’함이 되는 것은 바로 ‘만물을 다 갖추고 우주를 뛰어넘기’ 때문으로, 이것이 바로 성당기상의 본질이다”¹⁷⁾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韓文奇는 “‘盛唐之音’은 전체 시대의 웅장한 기백과 시대정신이 집중적으로 선명하게 체현된 것이다. 그 기본 음조는 建功立業의 英雄氣魄을 노래한 것으로 青春活

有顧忌, 想寫的便寫出來”(魯迅, 湯用彤等著『魏晉思想』, 台北: 里仁書局, 1995年, 3쪽)에서 인용.

15) 郭紹虞校釋, 『滄浪詩話校釋·詩評』: “唐人与本朝人詩未論工拙, 直是气象不同”(144쪽)

16) 郭紹虞校釋, 『滄浪詩話校釋·詩評』: “盛唐諸公之詩, 如顏魯公書, 既筆力雄壯, 又气象渾厚.” (253쪽)

17) 林庚, 「盛唐氣象」: “盛唐氣象既是氣象的最高理想, … 盛唐氣象之所以是‘渾厚’, ‘雄渾’, 正因其是‘具備萬物, 橫絕太空’, 這就是‘盛唐氣象’的本質.”(『北京大學學報』, 1958年 第2期, 87-97쪽)

力の 열정과 想像, 드높고 밝은 사상과 감정, 雄渾壯大한 氣勢와 힘을 갖추고 있다”¹⁸⁾라며, 성당기상의 함의를 더욱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이밖에도 ‘성당기상’의 내용상의 특징 및 미학적 관점 등에 대한 학계의 의견은 분분하다.¹⁹⁾ 다만 심미적 풍격의 각도에서 볼 때 ‘성당기상’은 ‘함축되어 두텁다(渾厚)’라고 하거나 혹은 ‘웅혼(雄渾)’의 풍격을 내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된다. 특히 혹자는 ‘성당기상’이 “陽剛의 審美범주 안에서 ‘雄渾’의 풍격에 치우쳐 있는 것”²⁰⁾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흥미로운 것은 清代의 孫聯奎이 『詩品臆說』에서 漢高祖 劉邦의 「大風歌」에 대해 “高祖의 사람됨은 氣象이 雄渾에 가까우며 따라서 그의 시 역시 雄渾하다”²¹⁾라 하며 제왕으로서의 웅혼한 기상이 시가 속에 드러난 것으로 파악한 바 있고, 또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조조의 시가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英雄의 氣概 등이 ‘건안풍골’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初盛唐 황제의 드높은 기상을 반영한 시가 창작 역시 ‘성당기상’의 ‘웅혼’한 풍격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初盛唐의 唐太宗, 武則天, 唐玄宗 등의 시가 작품 속에서는 황제로서의 드높은 기상을 펼쳐 보인 시가 창작이 적지 않으며, 바로 이러한 시가 창작은 ‘성당기상’의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3.1 唐太宗 시가 속의 氣象

당태종은 隋唐 교체기의 동란을 평정하며 실질적으로 唐朝를 개창한 開國

18) 韓文奇, 「盛唐邊塞詩與盛唐之音」: “盛唐之音是整個時代的宏偉氣魄和時代精神的集中而鮮明的體現. 其基本音調是謳歌建功立業的英雄氣魄, 俱有青春活力的熱情和想像, 高仰明朗的思想感情, 雄渾壯大的氣勢力量.”(『重慶廣播電視大學學報』, 1997年 第3期)

19) 이에 대해서는 高建新, 「五十年來‘盛唐氣象’研究述評」(『文學遺產』, 2010年 第3期, 152-158쪽) 참조.

20) 陳長義, 「建安風骨與盛唐氣象的美學定格」: “它在陽剛之美這個範疇里則偏于‘雄渾’一品”(92쪽)

21) 孫聯奎, 『詩品臆說』: “高祖爲人, 氣象近於雄渾, 故其詩亦雄渾.”

황제에 속한다. 『新唐書』에서 “隋代의 혼란을 몰아냈으니, 湯王, 武王에 비견되며, 훌륭한 태평정치를 이루어냈으니, 成王, 康王에 가깝다”²²⁾라 언급한 것은 바로 그러한 영웅적 제왕의 풍모를 지적한 것이다. 이른바 ‘貞觀之治’의 盛世를 이루며 唐代의 기틀을 잡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初唐 宮庭詩壇을 주도하며 唐詩가 空前의 絶頂에 이르게 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清代의 『全唐詩』 編纂者들이 “唐代 삼백년 동안 風雅(시)가 흥성했으니, (태종)황제께서 실로 그것을 열어 짓혔던 것이다”²³⁾라고 언급한 것은 바로 그러한 점을 잘 대변한다. 실제의 시가창작 면에서도 당태종은 상당한 창작량은 보여주고 있다. 陳貽焮主編의 『增訂注釋全唐詩』에²⁴⁾ 근거하면, 태종에게는 약 104首(殘句 제외)의 詩作이 현존하는데, “이와 같은 창작량은 當時의 다른 시인들과 비교할 때 가장 많은 수량이다. 예를 들어, 初唐의 魏徵(580-643)의 詩作은 대부분이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된 樂章이며 다른 제제의 시가는 단지 4首에 불과하며, 褚亮(560-647)은 약 10首, 楊師道(?-647)는 약 20首, 許敬宗(592-672)은 약 27首, 虞世南(558-638)은 약 32首, 王績(590?-644)은 태종의 절반인 약 53수의 시작만을 남기고 있을 뿐이다.”²⁵⁾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詩作의 곳곳에서는 帝王의 드높은 氣象을 드러내며 ‘성당기상’의 先河를 열어 주었다는 점이다. 그럼 여기서 태종의 「過舊宅二首」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其一

新豐停翠輦	新豐에 비취 장식 수레를 멈추고
譙邑駐鳴笳	譙邑에 악장대의 연주 멈추네
園荒一徑斷	정원은 황폐해져 온 길이 끊겼고
苔古半階斜	오래된 이끼는 기울어진 계단의 반을 덮었네
前池消舊水	앞 연못의 오래된 물은 빠져나가고

22) 『新唐書』卷2: “除隋之亂, 比迹湯武. 致治之美, 庶几成康.”

23) 『全唐詩』卷1: “有唐三百年風雅之盛, 帝實有以啓之焉.”

24) 陳貽焮主編, 『增訂注釋全唐詩』(北京: 文化藝術出版社, 2001年)

25) 최우석, 「唐 皇帝의 詩歌 創作과 그 詩歌史적 의미」(『中國學論叢』, 2013年 2月, 84쪽)

昔樹發今花	옛 나무에선 지금 꽃을 피우네
一朝辭此地	하루아침에 이곳을 떠나니
四海遂爲家	천하가 모두 나의 집이 되었구나

其二

金輿巡白水	금빛 수레로 白水를 돌아보시고
玉輦駐新豐	옥 수레로 新豐에 머무신다네

...

昔地一番內	예전엔 이곳이 오랑캐 땅이었다가
今宅九圍中	지금은 九州의 가운데 집이 되었네
架海波澄鏡	바다를 향해하니 물결은 거울처럼 맑고
韜戈器反農	무기를 거두니 기구는 농사로 돌아가네
八表文同軌	천하 밖까지도 제도가 통일을 이루었기에
無勞歌大風	「大風歌」 부를 필요 없다네

이것은 당태종이 즉위한 이후 貞觀6年(632)에 예전에 자신이 태어났던 武功慶善宮(현재 長安市 서쪽 武功縣에 위치)에 들러 그 감회를 읊은 시이다. 첫째 시의 첫 두 구절에서는 漢高祖 劉邦의 고향인 ‘新豐’과 魏武帝 曹操의 고향인 ‘譙郡’을 인용하여 자신이 방문한 ‘舊宅’이 바로 제왕의 고향임을 설정했다. 제3구부터 제6구까지는 오래되었지만 새로움이 약동하는 고향의 정경을 묘사했다. 마지막 두 구절에서는 집을 떠나 사해를 평정하고 돌아온 제왕의 기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두 번째 시 역시 처음 두절에서 漢光武帝의 고향을 나타내는 白水와 漢高祖의 ‘新豐’을 인용하였으며, 뒤이어 제3구부터 제8구까지는 옛 저택의 정경을 묘사했다. 제9구와 10구에서는 변방에 불과했던 자신의 옛 저택이 지금은 황제의 신분으로 九州의 중앙에 있게 됨을 서술했으며, 제11구부터 마지막까지는 太平盛世에 대한 자신감을 거울처럼 맑은 물결로 표현한 동시에 한고조 유방이 천하를 평정하고 고향을 지나다가 불렀다는 「大風歌」를 인용하며 帝王의 氣象을 한껏 드러냈다. 바로 이러한 연유로 역대의 평자들은 帝王의 ‘氣象’으로서 이 시를 호평했던 것이다. 宋代 陳岩肖(생졸년미상, 1147년 전후에 활약)는 『庚溪詩話』에서 “시어의 氣勢가 雄偉하

니, 진실로 인구에 회자되는 바가 된다. … 무릇 그 시어와 뛰어난 공적은 진실로 서로 부합한다”²⁶⁾라고 하거나 清代 胡震亨(1569-1645)이 『唐音癸籤』에서 “‘바람이 일고 구름 높이 날리는’ 「大風歌」와 그 雄偉한 눈매가 같으니, 원래 帝王의 氣象이 나란했던 것이다”²⁷⁾라고 언급한 바와 같다.

이어서 당태종의 「經破薛舉戰地」를 살펴보자.

昔年懷壯氣	옛날에 호매한 기상 품고
提戈初仗節	창을 메고 처음으로 황제의 출정 부절 받들었었네
心隨朗日高	마음은 높게 걸린 맑은 해를 따랐고
志與秋霜潔	뜻은 가을 서리와 같이 고결했다네
移鋒驚電起	칼끝을 휘두르니 놀라 번개가 일고
轉戰長河決	전장을 바꿔가며 싸우니 긴 강물이 터졌네
營碎落星沈	군영 깨뜨리니 적장은 사라지고
陣卷橫雲裂	적진지는 말려 구름 같은 병졸은 사방으로 찢어졌네
一揮氛沍靜	한번 휘두르니 흉악한 기운 잠잠해졌고
再舉鯨鯢滅	다시 들고 일어서니 탐욕스런 고래는 줄어들었네
于茲俯舊原	이곳에서 옛 들판을 굽어보고
屬日駐華軒	화려한 수레 멈춰 주시를 하네
沈沙無故迹	모래에 빠져 옛 자취는 사라졌으나
滅竈有殘痕	적 속이기 위해 아궁이 수 줄였던 흔적은 남아있네
浪霞穿水淨	물결 노을은 물을 뚫으며 맑고
峰霧抱蓮昏	봉우리의 안개는 연꽃 감싸며 희미하네
世途亟流易	세상 길은 빠르게 바뀌고
人事殊今昔	세상사는 예나 지금이 다르다네
長想眺前蹤	길게 생각하며 옛 자취 바라보고
撫躬聊自適	스스로를 돌아보며 잠시 유유자적하노라

『全唐詩』에는 이 시 제목 아래 “義寧元年(617) 扶風에서 薛舉를 공격하여 그를 격퇴했다”²⁸⁾라는 解題를 하고 있다. 이 시는 태종이 황제가 된 후에 예

26) 陳岩肖, 『庚溪詩話』: “辭氣雄偉, 固人所膾炙. … 蓋其詩語與功烈真相副也.”(『唐詩彙評』, 4쪽)

27) 胡震亨, 『唐音癸籤·評匯』卷五: “風起雲揚之歌同其雄盼, 自是帝王氣象方俚.”

전에 隴西(현재의 甘肅省 定西縣 일대) 지역을 장악하며 ‘西秦霸王’을 자처했던 薛舉(?-618)를 진압했던 일을 회고하며 지은 것이다. 시의 첫 구부터 제10구까지는 출정의 명을 받들고 나아가 영웅적 기개로 적을 섬멸하는 모습을 묘사했으며, 제11구부터 제16구까지는 황제가 된 후 다시 그 전쟁터를 찾아 그곳의 경물을 그려내고 있다. 마지막 네 구절에서는 옛 전쟁의 자취를 더듬으며 느끼게 되는 감회를 술회하고 있다. 제3구에서 “마음은 높게 걸린 맑은 해를 따랐고(心隨朗日高)”라고 하거나 제5구에서 “칼끝을 휘두르니 놀라 번개가 일고(移鋒驚電起)”라고 읊거나 제8구에서 “적진지는 말려 구름 같은 병졸은 사방으로 찢어졌네(陣卷橫雲裂)”라고 노래하는 등, 시의 곳곳에는 영웅의 기상이 확연히 드러나 있다. 『歷代詩發』에서 이 시에 대해 “영명하고 과감한 기세가 행간에 넘친다. 鍾伯敬(鍾惺, 1574-1625)이 태종의 시는 결국 陳隋代의 짝 막힌 울림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읽다보면 사람을 시원히 뚫어주지 못한다고 했는데, 다 통달한 말은 아닌 것 같다”²⁹⁾라고 언급한 것은 바로 그러한 점 지적해낸 것이다.

당태종의 「春日望海」 역시 제왕의 기상이 충만한 작품이다.

披襟眺蒼海	홍금을 열어 푸른 바다를 바라보고
憑軾玩春芳	수레 난간에 기대어 봄꽃을 감상하네
積流橫地紀	큰 바다는 대지를 가로지르고
疏派引天潢	물줄기는 은하수까지 이어졌네
仙氣凝三嶺	신선 기운은 세 봉우리의 산에 모여들고
和風扇八荒	조화로운 바람은 천지 밖까지 부네
拂潮雲布色	구름은 물결에 스치며 색을 깔고
穿浪日舒光	태양은 파도에 스며들며 빛을 퍼뜨리네
照岸花分彩	해안을 비추니 꽃 채색은 흩어지고
迷雲雁斷行	구름에 길 잃은 기러기는 행렬이 끊기네
懷卑運深廣	낮은 곳에 입하나 사방에서 모인 물로 깊고도 광활하며

28) 陳貽焮主編, 『增訂注釋全唐詩』: “義寧元年, 擊舉於扶風, 敗之.”(5쪽)

29) 『歷代詩發』: “英毅之氣, 勃勃行楮間. 鍾伯敬謂太宗詩終帶陳隋滯響, 讀之不能暢人, 似非通論也.”(『唐詩彙評』, 4쪽)

持滿守靈長	세상 다 담을 수 있는 지위에 임하여 신령함을 지키네
有形非易測	형태는 있으나 쉽게 측량할 수 없으며
無源詎可量	근원이 없으니 어찌 그 양을 잴 수 있으랴
洪濤經變野	큰 파도는 밭으로 변한 적이 있고
翠鳥屢成桑	비취빛 섬도 여러 번 뽕나무 밭이 되었네
之眾思漢帝	지부산에 올라 한무제를 생각하고
礪石想秦皇	갈석산에 올라 진시황을 그리네
霓裳非本意	신선의 옷은 본래 뜻한바 아니니
端拱且圖王	공손히 두 손을 맞잡고 왕업을 도모하려네

이것은 당태종이 貞觀19年(645)에 고구려를 親征하기 위해 定州에서 출발하여 가던 도중 바다를 보고 느낀 바를 읊은 시이다. 첫 구부터 제10구까지는 바다를 감상하는 배경을 설정한 뒤 눈앞에 펼쳐진 광활하며 아름다운 바다의 정경을 드높은 기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제11구부터 제16구까지는 바다의 웅장한 포용력과 측정할 수 없는 깊이, 그리고 그 모습을 변해 가며 영원함을 간직하는 바다를 그려내었다. 마지막 네 구절에서는 한무제와 진시황의 제왕적 풍모를 제시하고 있으나 결국엔 신선술에 경도되어서는 안 되며 왕업을 이루기 위해 면려해야 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고 있다. 다만 주의 할 것은 이 시는 바다의 풍경을 묘사함에 있어서 그 광활한 공간과 무한한 시간을 교차하는 가운데 드높은 제왕의 雄渾한 氣象을 여실히 투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밖에도 태종의 「帝京篇」은 “위대한 책략은 말할 것도 없고 雄偉한 재주는 스스로 일세를 내달렸다”³⁰⁾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며, 「入潼關」, 「還陝述懷」, 「飲馬長城窟行」, 「于北平作」, 「望終南山」 「望終南山」 등은 모두 역시 雄渾한 기상이 행간에 넘치는 詩作으로 평가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태종의 시가 창작은 후세의 시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성당기상’의 형성에 先河 역할을 해주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30) 『詩薈』: “無論大略, 卽雄才自當驅走一世”(『唐詩彙評』, 3쪽)

3.2 武則天 시가 속의 氣象

주지하다시피 무측천은 중국 최초의 여황제일 뿐만 아니라 그의 시문집은 약 백여 권에 달해 중국 여성의 시문집 가운데 가장 많은 작품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녀는 병약한 高宗을 대신해 실질적으로 唐朝를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宮廷 詩壇의 중심에서 시가 창작을 品評하고 격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시험 과목에 詩詞 항목을 더욱 강화 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등, 초당의 시가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다. 다만 주의 할 것은 무측천은 그 스스로가 여자라는 이유와 그 출신배경으로 인해 자존감이 부족한 나머지 그 반대급부 작용으로 남성 보다 더 강한 면모를 과시하고자 하는 성향이³¹⁾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그가 벌인 각종 문화 사업이나 혹은 그의 시가 창작에서 있어서 雄壯한 스케일이나 雄偉한 氣象을 더욱 선호했던 양상을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다. 그녀가 주조케 했던 ‘九鼎’은 56만 700여근의 구리를 사용했으며, 200척 높이의 ‘明堂’과 105척 높이의 ‘天樞’ 등을 축조하게 한 것 등은 모두 그 좋은 예이다.

웅장한 스케일이나 웅위한 기상을 선호했던 무측천의 모습은 그의 시가 창작에서도 여실히 살펴볼 수 있다. 무측천에게는 약 47수의 詩作이 현존하는데 그 가운데 「唐亨昊天樂」12首, 「唐明堂樂章」11首 등 38수가 郊廟祭祀에 속하며, 나머지 9수는 述懷, 宴飲, 贈答, 詠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그녀의 詩作의 곳곳에서 제왕의 드높은 기상을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무측천의 「曳鼎歌」를 살펴보자.

羲農首出,	복희씨와 신농씨가 먼저 나오고
軒昊膺期.	헌원씨와 소호씨가 천명 받아 제왕 되었네
唐虞繼踵,	요임금과 순임금이 뒤따르고
湯禹乘時.	탕왕과 우왕이 좋은 시절을 만났네.
天下光宅,	넓은 천하를 얻었으니

31) 이에 대해서는 勾利軍, 「武則天的自卑心理與性格特性」(『史學月刊』, 1998년, 1월) 참조.

海內雍熙.	온 천지가 태평성대를 누리네.
上玄降鑿.	하늘이 굽어 살피주시니
方建隆基.	바야흐로 융성한 기반이 세워졌다네.

이것은 萬歲通天元年(696)에 무측천이 ‘武周’朝의 태평성세를 頌揚하기 위해 ‘大禹’를 본받아 ‘九鼎’을 만들게 하고 나서 지은 것이다. 『詩經』의 「頌」體를 모방한 四言의 형식으로 典雅한 풍격 속에서 ‘武周’朝를 ‘唐虞’와 ‘湯禹’로 비유하며 천하의 태평을 찬미하고 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자신의 功業을 堯舜의 정치로 비유하는 동시에 천하의 태평성세를 하늘의 굽어 살핌으로 연결시키는 묘사를 통해 帝王의 커다란 氣象을 드러내고 있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 시외에도 ‘歌功頌德’을 그 本色으로 삼는 ‘郊廟祭祀’의 樂章 중에서도 제왕의 드높은 기상은 곳곳에 드러나 있다. 예를 들어 「唐享昊天樂」의 대표작품인 「其三」에서 “하늘의 도는 혼연히 하나 되어 두텁고, 하늘의 이치로 영명한 군주를 내려 보냈네. 밝은 태양은 새벽부터 궁궐을 단장하고, 황제의 별빛은 궁궐 가운데 비추네(乾儀混成冲濇, 天道下濟高明. 闔陽晨披紫闕, 太一曉降黃庭)”라고 하거나, 「其四」에서 “미약한 정성이 뜻밖에 천체를 감응시키니, 천명을 받들어서 왕업을 한층 더 빛나게 하리(微誠詎幽感, 景命忽昭融)”라고 하거나, 「唐明堂樂章·徵」에서 “밝게 빛나는 태양의 빛은 대지를 다스리고, 이글이글 뜨거운 경치는 한 여름을 알리네(赫赫離精禦炎陸, 滔滔熾景開隆暑)”라고 한 것 등은 모두 雄偉한 제왕의 기상을 드러낸 것들로 볼 수 있다.

한편 ‘頌’體 시외의 작품에서도 그러한 제왕의 기상은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무측천의 「腊日宣詔幸上苑」을 예로 들어 살펴보자.

明朝遊上苑	내일 상림원을 노닐려하니
火急報春知	화급하게 봄에게 알리노라
花須連夜發	모름지기 밤을 새 꽃을 피워야 할 것이니
莫待曉風吹	새벽바람 불 때 까지 기다리진 못하노라

『唐詩紀事』에 “天授2년(691) 설달에 조정 대신들이 거짓으로 꽃이 피었다

고 말하며 上苑에 행차하시기를 청하였으니 음모가 있었던 것이다. 이를 허락하고 이상하게 여기니 다른 의도가 있음을 알고 먼저 사자를 보내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위 시의 내용)”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른 새벽에 아름다운 꽃들을 상원에 늘어놓았으니, 신하들이 모두 그 비범함에 탄복했다³²⁾라는 구절이 보인다. 이것은 무척천이 ‘大周’를 선포한 이듬해에 지은 것으로, ‘봄(春)’이라는 自然界에게도 꽃을 피울 것을 단호하게 명령하는 帝王의 氣魄을 한껏 드러낸 것으로, 처음부터 끝 구절까지 하나의 氣勢로 일관하고 있다. 이 밖에도 「遊九龍潭」에서는 “바위 꼭대기에선 두 마리 봉황이 날아다니고, 깊은 연못 한가운데에는 거꾸로 구룡이 비치네(巖頂翔雙鳳, 潭心倒九龍)”라고 읊은 것이나, 「石淙」에서 “만 길의 높은 바위 절벽은 태양빛을 감추고, 천 장의 깊은 계곡물은 구름 옷을 씻네(萬仞高巖藏日色, 千尋幽澗浴雲衣)”라고 노래한 것에서는 모두 제왕의 기상을 엿 볼 수 있다. 물론 이렇듯 드높은 기상을 선호하는 무척천의 시가 창작은 當時의 詩壇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며, 특히 바로 뒤에 도래할 ‘盛唐氣象’의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사실상 “시가 중의 盛唐氣象은 결코 玄宗朝에 이르러 비로소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며, 일찍이 무척천 시기에 이미 그 단초를 점차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앞장과 영향아래 궁정에는 氣勢가 넘치고 氣魄이 광대한 盛世의 경물을 표현한 작품이 많이 창작되었던 것이다.”³³⁾

3.3 唐玄宗 시가 속의 기상

주지하다시피 唐玄宗은 開元9年(721)부터 大歷5年(770)³⁴⁾에 이르는 약 50

32) 計有功撰, 『唐詩紀事』卷3: “天授二年臘. 卿相欲詐稱花發, 請幸上苑, 有所謀也. 許之, 尋疑有異圖, 先遣使宣詔曰; 明朝遊上苑, 火急報春知. 花須連夜發, 莫待曉風吹.” 於是凌晨名花布苑, 群臣咸服其異”(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年, 24쪽)

33) 路榮, 『武則天詩歌研究』: “詩歌中的盛世氣象并不是到玄宗朝才突然產生的, 早在武后朝就漸露端倪了. 在他的唱導與影響下, 宮廷中產生了許多氣勢飛動, 氣魄宏大, 表現盛世景象的作品.”(西北大學碩士學位論文, 2001年 4月, 34쪽)

년간의 눈부신 성취를 이룬 盛唐詩壇의 문을 직접 열었던 황제였다. 당현종은 집정 초기의 영명한 정치를 통해 大帝國 건설에 걸 맞는 안정된 정치체제와 부강한 경제기반을 조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麗正書院, 集賢書院 등의 교육기관을 설치해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儒敎를 중시하는 가운데 道敎와 佛敎를 장려하는 등 폭넓은 사상적 공간을 제공해 주었다. 게다가 “그 자신이 音律에 정통하고 고대 악곡의 하나인 ‘法曲’을 매우 좋아했으며 앉아서 연주하는 연주단의 자제 300명을 선발하여 梨園에서 가르칠”³⁵⁾ 정도로 문예에 매우 뛰어났다. 특히 시가 창작 측면에서는 약 66首에 이르는 詩歌가 현존하여 당대 황제 가운데 太宗 다음으로 많은 창작량을 보여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沈德潛의 『唐詩別裁集』과 王夫之의 『唐詩評選』에 각각 9수씩 수록되어 있는 등, 역대 唐代 황제들의 詩作 가운데 가장 많은 작품이 好評 받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여러 면모는 盛唐詩壇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현종의 시가창작 속에서는 雄渾한 氣象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인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盛唐氣象’이라는 시대 환경의 필연적 부산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황제라는 그의 신분을 고려할 때 ‘성당기상’의 擴張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한 것으로도 평가 할 수 있다.

그럼 먼저 현종의 「早度浦津關」를 살펴보자.

鐘鼓嚴更曙	시각 알리는 종소리 북소리에 새벽은 밝아지니
山河野望通	들녘 바라보매 산과 강 훤히 보이는구나
鳴鸞下蒲坂	말고삐 방울 울리며 포진의 제방에 내리고
飛旆入秦中	깃발 날리며 관중 땅으로 들어가네
地險關逾壯	지세가 험하니 관새는 더욱 굳세고
天平鎮尙雄	하늘 평평하니 진영은 용감함을 떠받드네

34) 혹자는 720년부터 766년의 기간을 ‘盛唐’으로 보기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袁行霈의 721년부터 770년까지의 주장을 따르고자 함.(袁行霈, 『盛唐詩壇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2年, 4쪽) 참조.

35) 『新唐書·禮樂志』卷21: “玄宗既知音律, 又酷愛法曲, 選坐部伎子弟三百, 教于梨園.”

春來津樹合	봄이 오니 포구의 나무는 서로 합쳐지고
月落成樓空	달이 지니 병영의 누각은 텅 비어지네
馬色分朝景	말 빛같은 아침의 풍경 나누고
鷄聲逐曉風	닭소리는 새벽바람을 따르네
所希常道泰	영원한 도 충만하길 바라노니
非復候繻同	관세 출입증 검사 같은 일은 다시없기를

이것은 開元 11년(723) 봄에 현종이 并州에서 長安으로 돌아오는 길에 浦津關(현재 山西省 永濟縣의 서쪽과 陝西省 大荔縣의 동쪽 경계에 있음)을 지나며 지은 것이다. 시는 험준한 포진관의 풍경과 기백이 충만한 제국의 병영을 묘사하는 가운데 제왕의 웅장한 위엄과 기상을 유감없이 그려내었다. 특히 제5구와 6구에서는 “지세가 험하니 관세는 더욱 굳세고, 하늘 평평하니 진영은 용감함을 떠받드네(地險關逾壯, 天平鎮尙雄)”라 하며, 직접적으로 ‘險’, ‘壯’, ‘雄’ 등의 형용사를 사용하며 드높은 기상을 표현하였다. 바로 이러한 연유로 후세의 많은 평자들은 이 시의 드높은 氣象에 주목하며 호평을 했던 것이다. 宋代 朱熹(1130-1200)가 『朱子語類輯略』에서 “唐明皇(현종)은 영웅적 호매함의 자질을 갖추었으니, 단지 그가 지은 시를 보면 어떤 氣魄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지금 『唐百家詩』에 가장 먼저 명황의 「早度浦津關」 시 한 수를 게재하고 있으니, 얼마나 큰 표일한 기개인가, 바로 제왕의 불꽃같은 기세가 있는 것이다”³⁶⁾라고 평가한 것이나, 明代의 施重光이 『唐詩近體』에서 이 시에 대해 “전 시가 雄壯한 가운데 또한 지극히 맑고 곱다”³⁷⁾라고 극찬 한 것은 모두 그 좋은 예이다. 이 시는 시기적으로 盛唐 초기의 작품으로 그 作法에서는 初唐의 흔적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 氣象만큼은 盛唐의 수준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清代 紀昀(1724-1805)이 “字句는 初唐體를 띠고 있지만 氣格은 이미 순전한 盛唐의 것이다. 이러한 풍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체제인 것이다”³⁸⁾라고 한 것은 바로 그러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36) 朱熹, 『朱子語類輯略』: “唐明皇資稟英邁, 只看他做詩出來, 是什麻氣魄. 今『唐百家詩』, 首載明皇一篇「早度浦津關」, 多少飄逸氣概, 便有帝王底氣焰.”(『唐詩彙評』, 7쪽)

37) 施重光, 『唐詩近體』: “全詩雄壯中又極清妍, 中寫曉景, 無刻畫痕”(『唐詩彙評』, 7쪽)

이어서 현종의 「幸蜀西至劍門」를 살펴보자.

劍閣橫雲峻	劍門關은 구름을 가로지르며 험준하니
鸞輿出狩回	황제의 수레는 밖으로 출유했다 돌아가네
翠屏千仞合	비취 병풍 같은 산은 천길이나 높고
丹嶂五丁開	붉은 산 절벽은 다섯 장사가 길을 냈다네
灌木縈旗轉	관목 숲은 무성하여 깃발을 휘감아 돌고
仙雲拂馬來	신선 구름은 말을 스치며 다가오네
乘時方在德	때에 맞추어 바야흐로 德政 펼쳐야 하니
嗟爾勒銘才	아! 그대들은 청사에 이름 새길 인재로구나

『唐詩紀事』에 “황제께서 蜀(현재의 四川省)에 행차하셨다가 서쪽으로 劍門(현재의 劍門關)에 이르러 題詩하며 이르기를, ‘(위 시의 내용)’라고 했다. 至德2年(757)에 普安군수 賈深이 바위에 그것을 새겼다”³⁹⁾라는 전고가 보인다.

이것은 현종이 安史의 亂을 피해 蜀에 갔다가 난이 평정된 후 至德2년에 長安으로 돌아가던 길에 劍門(현재의 四川省 劍閣縣 동북쪽)에 이르러 그 감회를 풀어낸 述懷詩이다. 처음 두 구절은 劍門關 산세의 험준함을 ‘가로지르는(橫)’ 기세로 묘사했으며, 제3구부터 제6구까지는 정교한 대구를 운용하며 검문관의 비범한 풍경을 그려내었다. 마지막 두 구절에서는 西晉 張載(생졸년 미상)가 「劍閣銘」에서 “흥하고 부강해지는 것은 德에 있는 것이니, 험준함은 역시 믿기 어렵다”⁴⁰⁾라고 언급한 것을 전고로 삼아, 지난날 자신의 과오를 반추하는 가운데 난을 평정하여 공을 세운 대신들에게는 치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의 할 것은 이 시는 전편에 걸쳐 제왕의 옹호한 기상을 드러내어 후세의 호평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清代 邢昉(1590-1653)이 『唐風定』에서 “전 아하게 아름다우며 옹호하게 가지던하니, 氣象이 일세를 뒤덮었다”⁴¹⁾라고 극

38) 方回選評, 李慶甲集評校點, 『瀛奎律髓匯評』: “紀昀曰: 字句猶帶初體, 氣格已純是盛唐. 此風氣初成之體也.”(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年, 501쪽)

39) 『唐詩紀事』卷2: “帝幸蜀, 西至劍門. 題詩曰, … 至德二年, 普安郡守 賈深勒石.”(12쪽)

40) 『晉書·張載傳』卷55: “興實在德, 險亦難恃”

41) 邢昉, 『唐風定』: “高華雄整, 氣象籠蓋一代”(『唐詩彙評』, 6쪽)

찬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물론 이렇듯 드높은 기상이 ‘盛唐氣象’의 형성에 일정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으니, 沈德潛이 『唐詩別裁集』에서 “雄健하게 힘이 있으니, 盛唐 한 세대의 先聲을 열었다”⁴²⁾라고 언급한 바와 같다.

이밖에 현종의 「送張說巡邊」에서 “삼군이 오랑캐 땅에 이르고, 수레 끄는 네 마리 말은 오랑캐 향해 나아가네. 취주악대의 소리는 오랑캐를 위협하고, 깃발과 수레는 낙양에 넘쳐나네(三軍臨朔野, 駟馬即戎行. 鼓吹威夷狄, 旌軒溢洛陽)”라고 노래 한 것이나, 「行次成臯途經先聖擒建德之所緬思功業感而賦詩」에서 “선성(당태종)께서 칼을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치시니 바람과 구름이 일어났네. 말들이 물을 마시니 황하와 낙수가 모두 메말랐고, 기를 일으키니 승산과 화산이 놀랐다(先聖按劍起, 叱咤風雲生, 飲馬河洛竭, 作氣嵩華驚)”라고 노래 한 것 등에서는 모두 드높은 웅혼한 기상을 엿 볼 수 있다.

4. 맺음말

『孟子·滕文公上』에 “윗사람이 어떤 일을 좋아하면 아랫사람 가운데는 반드시 그 일을 더 심하게 좋아하는 자가 있게 된다(上有好者, 下必有甚焉者矣)”라는 말이 있다. 이러한 표현은 아마도 중국의 고대 詩史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황제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며 직접 시가 창작에 몰두했던 建安시기와 唐代 시기에 있어서 황제의 기호는 그 파급효과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고는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중국 고대 시가 예술성취의 두 봉우리로 여겨지는 이른바 ‘建安風骨’과 ‘盛唐氣象’의 형성에 제왕의 시가창작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고찰하고자 했다.

일반적으로 ‘건안풍골’의 풍격은 ‘힘(力)’으로 표현 되든 혹은 ‘勁健’으로 표

42) 沈德潛, 『唐詩別裁集』卷9 “雄健有力, 開盛唐一代先聲”(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年), 288쪽)

현되든, 일종의 드높은 氣象을 한껏 드러낸 ‘陽剛’의 審美觀이 포함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이러한 드높은 기상은 魏武帝 曹操의 시가 창작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실제로 조조의 시가 창작 속에는 「步出夏門行·觀滄海」, 「步出夏門行·龜雖壽」, 「卻東西門行」, 「短歌行」 등과 같이 혹은 “우주를 삼켰다가 토하는 氣象이 있다(有吞吐宇宙氣象)”라는 평가를 받거나 혹은 영웅의 장대한 기상이 넘치는 것으로 여겨지는 등 ‘陽剛’의 審美가 매우 농후했던 것이다. 건안시단의 실질적인 領袖였던 조조의 이러한 시가 풍격이 건안시단의 공통 속성인 소위 ‘風骨’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긍정할 수 있을 것이다.

開國의 황제로 시가 창작에 열을 올려 한 시대의 시가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했던 曹操와 같이, 唐太宗 역시 실질적인 개국의 황제인 동시에 당대 황제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가를 창작하며 唐代가 ‘시의 나라(詩國)로 진입하는데 매우 큰 견인 역할을 했다. 특히 그의 시가 가운데 「過舊宅二首」, 「經破薛舉戰地」, 「還陝述懷」, 「飲馬長城窟行」 등과 같은 작품 속에 보이는 雄渾한 氣象은 후대의 ‘盛唐氣象’의 출현에 先河 역할을 해 주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른바 ‘성당기상’이란 일반적으로 ‘함축되어 두텁다(渾厚)’라고 하거나 혹은 ‘웅혼(雄渾)’의 풍격을 내포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태종의 그러한 풍격은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무척천과 현종의 시가창작은 ‘성당기상’ 형성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무척천은 여자 황제라는 일종의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에서 인지는 몰라도 대량의 ‘郊廟祭祀’의 악장을 창작하거나 혹은 「曳鼎歌」, 「腊日宣詔幸上苑」 등의 시가를 창작할 때 웅장한 스케일과 제왕의 웅혼한 기상을 유감없이 표현하였다. 또한 당현종은 盛唐의 門을 직접 연 황제로서 「早度浦津關」, 「幸蜀西至劍門」, 「送張說巡邊」 등의 詩作을 통해 제왕의 웅혼한 기상을 곳곳에서 드러내었다. 물론 이러한 시가 창작은 ‘성당기상’의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니, 沈德潛이 『唐詩別裁集』에서 “雄健하게 힘이 있으니, 盛唐 한 세대의 先聲을 열었다(雄健有力, 開盛唐一代

先聲)”라고 평가한 것은 매우 온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결국 중국 고대 詩史上, 漢高祖의 「大風歌」이래로 제왕의 시가창작은 ‘드높은 기상’을 그 本色으로 삼는 전통이 형성되어 있음을 간과 할 수 없으며, 특히 제왕의 신분으로서 시가 창작에 열중하여 시가 발전에 큰 동력을 주었던 ‘建安’과 ‘盛唐’ 시기에는 제왕의 그러한 ‘드높은 기상’이 ‘勁健’하거나 혹은 ‘雄渾’한 풍격을 형성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參考文獻

- 김승심, 「盛唐詩歌와 盛唐氣象」, 『中國人文科學』, 第31輯.
- 丁放, 袁行霈, 『盛唐詩壇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2.
- 許逸民編輯, 『三曹資料彙編』, 北京: 中華書局, 2005.
- 曹操, 『曹操集』, 北京: 中華書局, 2011.
- 王運熙, 『漢魏六朝唐代文學論叢』,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2.
- 胡可先, 『中唐政治與文學』, 合肥: 安徽大學出版社, 2000.
- 吳兢, 『貞觀政要』,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78.
- 吳雲 校注, 『唐太宗全集』,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2004.
- 沈德潛, 『唐詩別裁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
- 計有功, 『唐詩紀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65.
- 孫琴安, 『唐詩與政治』,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3.
- 許炯編, 『許永璋唐詩論文選』, 南京: 南京出版社, 1993.
- 許總, 『唐詩史』, 南京: 江蘇教育出版社, 1995.
- 彭定求, 楊中訥等, 『全唐詩』, 北京: 中華書局, 1991.
- 陳伯海主編, 『唐詩彙評』, 杭州: 浙江教育出版社, 1996
- 陳貽焮主編, 『增訂注釋全唐詩』, 北京: 文化藝術出版社, 2001
- 葛曉音, 『詩國高潮與盛唐文化』,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8.
- 劉開揚 『唐詩通論』, 成都: 巴蜀書社, 1998.
- 程莉, 『武則天及其詩歌研究』, 四川大學碩士學位論文, 2006年 4月.
- 丁放, 袁行霈, 「唐玄宗与盛唐詩壇——以其崇尚道家与道教爲中心」, 『中國社會科學』, 2005年 7月.
- 王運熙, 「說盛唐氣象」, 『上海社會科學院學術季刊』, 1986年 3期.
- 王秀芹, 「盛唐氣象的淵源及其展開」, 『廣播電視大學學報』, 2006年 4期.
- 田恩銘, 「唐德宗與貞元詩風」, 『哈爾濱師範大學社會科學學報』, 2011年, 9月.
- 司海迪, 「論武則天詩歌中的帝王氣象」, 『湖南工業職業技術學院學報』, 2009年 12月.

- 林庚,「盛唐氣象」,『北京大學學報』,1958年 第2期.
- 林繼中,「魏晉風度與盛唐氣象的轉換」,『人文雜誌』,1995年, 2期.
- 吉定,「論唐帝王對唐詩繁榮的貢獻」,『南京社會科學』,2004年, 12月.
- 李曉青,「論唐太宗的政治詠懷詩」,『邢台學院學報』,2006년, 3월.
- 吳在慶,「論唐太宗與盛唐氣象」,『河南科技大學學報』,2007年, 2月.
- 高建新,「五十年來‘盛唐氣象’研究述評」,『文學遺產』第3期.
- 高青,「論唐太宗李世民的詩歌」,『山西大學學報』,1996年 第4期.
- 陳順智,「論唐太宗的雅正文學觀及其對貞觀詩壇的影響」,『武漢大學學報』,1999年 4期.
- 陳長義,「建安風骨與盛唐氣象的美學定格」,『社會科學研究』,1994年, 6月.
- 孫明君,「建安氣象」,『清華大學學報』,1998年, 4期.
- 路雲亭,「建安風骨和盛唐氣象-士人生存智慧與古典詩歌的兩次高潮」,『晉陽學刊』, 2000年, 5期.
- 黃鑫,「玄宗與盛唐文學」,『遼寧經濟管理幹部學院學報』,第2008年 第1期.
- 張振華,「淺析唐玄宗與盛唐詩歌崛起之關係」,『西北大學學報』,1985年, 4月.
- 羅文革,「淺談唐玄宗對盛唐詩的影響」,『邯鄲職業技術學院學報』,2008年, 9月.
- 梁爾濤,「貞觀雅詩學官析論」,『殷都學刊』,2008年, 9月.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of Emperors' Poetry on Jianan-fenggu
and Shengtang-qixiang

Choi, Woo-suk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Emperor's Poetry on Jianan-fenggu and Shengtang-qixiang. Caocao's poetry deeply influenced the formation of Jianan-fenggu which is characterized by strong vigor and elevated sentiments. These uplifted vigor and emotions are, in fact, shown in many parts of Caocao's poetry. Poetry by Tang dynasty's emperors, including Taizong, Wuzetian, Xianzong, etc., also had a wide effect on Shengtang-qixiang. Emperors commonly adopted strong vigor in many parts of their poetry. Junior Scholars tend to follow the tastes of social superiors in literature. This influencing relationship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Key words : Jianan-fenggu, Shengtang-qixiang, Emperor, Poetry, Emperor's Poetry

투 고 일 : 2013. 09. 10. / 심 사 일 : 2013. 10. 20. ~ 2013. 10. 27. / 게재확정일 : 2013. 10. 28.